

月川 趙穆과 禮安地域의 退溪學脈

鄭 萬 祚*

I

退溪 李滉은 仕宦과 학문활동을 통하여 많은 官僚·名士들과 교류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과 學德을 사모하여 來學하거나 서신으로 問業한 數多한 儒士·士林들과의 講學·討論에 의해 師弟의 緣을 맺어왔다. 그래서 「陶山及門諸賢錄」에 수록된 及門한 인물만으로도 309명을 헤아릴 정도이며, 그 지역별 분포에서도 退溪의 출신지인 경상도는 물론 서울과 그 주위의 경기도 일원 및 충청·전라·강원·황해도에까지 미쳐 가히 全國的이라 할 만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退溪의 문하에는 西厓 柳成龍·鶴峯 金誠一·藥圃 鄭琢·月川 趙穆·寒岡 鄭述·高峯 奇大升·錦溪 黃俊良 등의 法統弟子와 李珥·成渾·尹根壽·具鳳齡·權好問·金宇顥·李楨 같은 問業 從遊人의 面面에서 보듯이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뛰어난 인물들이 많다.

退溪門人內의 이러한 기라성같은 인물 가운데서 단연 退溪의 衣鉢을 받은 嫡傳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한 인물이 바로 月川 趙穆이다. 이는 그가 퇴계문하의 선배항렬에 위치하기도 하려니와 歿後 陶山書院을 건립하여 師門의 香火를 받들고 이곳을 중심으로 활발한 강학활동을 벌려 士風을 계승 확대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데다가, 퇴계사상의 精粹만을 담아 『朱子大全』 같은 寶典으로 삼자는 安東지역 문인들의 異論을 물리치고 선생의 片言隻字라도 모두 빠뜨리지 않는다는 奎稿收錄에 따라 退溪文集을 편집간행함으로써 師門의 발전과 顯彰을 주도한데서 온 결과였다. 그리하여 月川은 全國에 걸쳐 수집개소에 이르는 退溪祭享의 書院 중 首院의 위치를 차지하는 陶山書院에 유일한 配食者로서 從享되었고, 光海君代 大北政權과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의 관련혐의로 仁祖이후 그 門人들이 일거에 쇠퇴하여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月川의 從享 자체는 동요가 없었던 것이다.

II

醴泉·榮川 등지를 전전하던 月川 집안은 月川의 父 大椿이 안동권씨 受益의 딸을 아내로 맞으면서 妻家가 있는 예안 月川리에 정착, 비로소 예안 사람이 되었다. 安東權氏는 안동일대에 상당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來居해 오는 士族들의 定着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말해지는 만큼(李樹健, 『嶺南學派 諸家門의 社會經濟的 基盤』, 『嶺南學派의 形成과 發展』) 예안 입항을 통해 월천집안도 생활의 안정을 갖게 되고 그 위에 學力을 바탕으로 다른 사족과 어울리게 되었을 것이다. 月川 역시 安東權氏 蓋世의 女를 娶하였는데 權蓋世 家는 權居約→自謙→哲從→轅로 이어지며 退溪門人들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는 이 지역의 名門이었다. 뿐 아니라 月川의 누이들은 琴熹·權重器·琴蘭秀 등에게 시집갔는데 奉化 琴氏가 예안지역에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退溪家門과도 혼인을 트고 있는 대표적인 士族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月川의 활동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月川은 15세 되던 中宗 33년, 마침 內艱을 맞아 향리에 머물던 退溪를 처음으로 찾아뵙고 학업을 청하였다. 이때 退溪는 38세로 아직까지는 學者로서의 면모보다는 官人的 자세를 갖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때 맺은 師弟의 緣은 退溪가 下世할 때까지 30년 넘게 계속되었으며 退溪의 학문적 성취에 따라 月川 또한 성장함으로써 退溪의 많은 門人들 가운데서 그 衣鉢을 전해받은 으뜸가는 제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月川이 經書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退溪에게 質疑하게 된 것은 27세때 부터였다고 하며 32세때 延平答問을 읽고 論한 글을 退溪에게 上書하였다하나, 32세때에 두번째로 上京하여 成均館에 留學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는 科擧에 대한 의욕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道學에 관한 月川의 연구가 본격화

한 것은 아마도 退溪와 高峯사이에 明宗 15년부터 비롯된 四端七情論辯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39세때인 明宗 17년 心經에 관한 質疑가 처음 나온 이래 4~5년간 退溪와 사이에 人心道心精一執中圖라든가 心經附註大學章句, 程復心の 心學圖 등에 대한 질의와 問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이르러서는 단순히 退溪에게 稟質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예컨대 程敏政의 心經附註에 대해 강한 비판과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退溪으로 하여금 心經後說을 짓게 하였던데서 보듯이 당당히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月川은 道學者로서의 기반을 굳히고 이후 藏修와 篤行으로서 蘊蓄을 쌓아간 것으로 보인다.

과거를 하지 않은 月川은 隱逸로서 천거에 의해 몇차례 外職을 받았고 늙은이에 從2品인 嘉善大夫로 工曹參判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그러나 퇴계의 難進易退하는 立朝자세를 본받아 대개는 나아가지 않았고, 奉化와 陝川의 守令職은 한두 번 역임했지만 별다른 治績을 낸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民生의 積弊를 구할 어떤 改革論이나 國政運營을 새롭게 할 構想을 갖지도 않았다. 그는 齊民의 能吏나 治國의 經世家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가 자신이 살던 시기의 士林政治속에서 담당하였던 구실은 山林의 존재에 있었다.

山林은 道學의 상징이고 義理의 주인이며, 국가의 元氣라는 사림의 宗師로서,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로는 樵夫駉婦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국가의 막중한 典禮 문제나 名分是非에 관한 사림의 말 한마디는 그대로 사림세력의 義理가 되고 不動의 國是로 정립되어 國政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李佑成, 「李朝 儒教政治와 山林의 존재」, 『韓國의 歷史像』). 宣祖初 영의정 李浚慶이나 신진사류의 대표이던 栗谷 李珣가 제각기 退溪와 牛溪 成渾을 의리의 주인으로 삼아 정국을 운영하고자 한 것이라든가, 北人이 鄭仁弘을 山林으로 삼아 柳成龍 중심의 남인정권을 공격, 실각시킨 것이 그 예가 된다.

月川의 山林의 位像은 임진왜란 중 講和論에 대한 배척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同門의 柳成龍이 영의정으로서 난국의 수습에 임하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화론자를 秦檜에 비유하여 彝倫을 무너뜨리는 悖論이라 猛斥하여 士

論의 향배를 부정적으로 이끌어 가므로서 南人 실각의 계기를 가져왔던 것이다.

III

月川은 저술하기를 즐기지 않아 많은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몰후 60년이 지나서야 나오게 된 文集마저도 西厓와의 갈등관계를 담은 내용 때문에 門人 金澤龍이 지은 月川言行錄 등의 기록을 제외시켜 버려서 月川 학문과 사상의 全貌를 살필 수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經學은 月川學問의 본령이니만치, 또 수십년간 퇴계를 모시면서 문의하고 의견을 나누었을 터이므로 그 남긴 문자가 적지 않았겠지만 현재 전해지는 것은 心經稟質·朱書節要稟質·尙書疑義·家禮疑義의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月川의 저술이라기 보다는 제목 그대로 師弟間의 問答內容으로 되어 있어 月川 경학사상을 살피는데 한계를 준다. 여기서는 行狀에 실린, 「心經附註」와 「心經」, 羅整菴의 「困知記」에 대한 月川의 견해만을 소개하겠다.

본래 「心經」은 宋의 陳德秀가 道學者들의 심성수양에 관한 격언을 모아 편집한 책인데 여기에 明의 程敏政이 그 註釋書를 붙여 「心經附註」라 하였다. 이것이 전래되기는 中宗말년경인데 이를 접한 退溪는 크게 감탄하여 믿기를 神明과 같이하고 공경하기를 父母와 같이 했다고 한다. 따라서 退溪門人들도 자연 심경을 많이 읽었으며 그에 대한 연구가 크게 성행하였다.(『증보문헌비고』에 실린 9종의 心經에 관한 조선 유학자들의 저술중에 퇴계와 그 문인 李德弘·曹好益·李畝·亨·鄭述 등의 것이 7종이나 된다.) 月川이 心經附註에 관해 질의하기는 39세때(明宗 17년)였으며 이후 4~5년간 집중적으로 질문과 논란을 전개하는데, 이때 月川의 心經에 대한 이해가 크게 깊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心經 및 그 附註에 대한 퇴계문인들의 반응은 퇴계와 약간 달랐던 것 같다. 錦溪 黃俊良은 “陳德秀는 실상이 없고 范浚은 절실하지 못하며 黃幹의 소견은 더욱 떨어지고 程敏政은 식견이 밝지 못한데다가 채택이 정밀치 못하다(『錦溪先生文集』 卷7, 書「上退溪先生問目」(心經, 癸亥)”라고 비판했으며 月川

역시 心經을 읽기는 좋아했으나 附註의 기록에서 四書說에 朱子註를 오로지 하지 않고 他說을 붙인 것과 또 尊德性만 강조하고 道問學을 가볍게 다루는데 의심을 가졌다가 陳建의 皇明通紀에서 程敏政의 인물됨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을 읽고는 그가 名利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禪定에 빠져 있었다고 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에 退溪는 「心經附註」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心經後說」을 지었는데 여기서 月川의 견해를 받아들여 朱陸相異를 역설함으로써 皇墩의 견해를 배척하였다. 月川의 의심과 질의는 「心經」 자체에 대해서도 가하여졌다. 그것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眞西山이 「心經贊」에서 ‘微’字를 ‘理의 無形’이라 이해한 것을 거부하고 ‘理의 은미함’을 말할 뿐 程子が 말하는 ‘顯微無間’의 ‘微’와는 다르다고 밝힌 것(退溪도 동조)이며, 둘째는 心經에 실린 程復心(林隱)의 「心學圖」에 대해 ① 良心과 本心을 분리해 놓았으나 兩者는 본래 一致한다고 함 ② 赤子心·大人心은 人心·道心처럼 둘로 나누어 對比시킬 수는 없다고 함 ③ 「敬圖」에서 克復, 心在 다음에 求放心을 두는데 先後가 바뀐 것임 ④ 戒懼·操存보다 養心이 먼저 나와야 하며, 心思에 대해서도 養心이 앞선다고 한 것으로, 주로 「心學圖」의 개념배치에 대해 의심나는 점을 지적하였다(이에 대해 退溪는 程復心の 개념배치를 대체로 긍정하는 면에서 답하였다). 세 번째의 그것은 王柏(魯齋)의 「人心道心圖」에 대해 이를 수정하여 자신의 견해에 따른 「人心道心精一執中圖」를 그린 것인데 이를 받아 본 退溪는 月川의 說을 참고하여 두 차례나 자신의 「人心道心圖」를 작성하였다.

위와같이 「心經附註」와 「心經」에 대한 月川의 질의와 退溪의 답변은 退溪·高峯 사이의 四七論辨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문답에만 그치지 않고 師生間에 학문토론을 통한 相互裨益을 이룬 사례로 칭송되고 있다.

이외에도 月川은 퇴계의 理學通錄에 대한 跋文에서 羅整菴의 困知記에 대해서 程註에 대한 異說을 내세워 陽尊陰壞했다고 비판했으며, 陳白沙나 王陽明의 禪合良知說이 죽히 斯道를 그르치게 하고 後學을 병들게 한다고 하여 僻異端의 차원에서 비난해 마지 않았다. 그리고 先賢의 글에서 자신을 수양하는데 필요한 격언을 베껴내어 이를 모아 「困知雜錄」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선조년간 李珥와 成渾사이에 人心道心論辯을 거쳐 율곡이 인심도심도설을 지어 임금께 올리면서 四端七情이 모두 氣發이며 理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주장을 편데 대해서도 月川은 분명히 “망령되어 자기 주장을 내세워 朱子の 理發氣隨 氣發理乘의 定論을 동요시키려 하니 이야말로 腹心の 적이라”고 배척해 마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月川은 易學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선조 27년 11월 經筵에서 周易강의를 담당할만한 유학자로 吳의정 金응남에 의해 천거되어 특별히 소명이 내린 사실과 행장에 나오는 주역구결을 개표했다는 기록이 있음에서이다. 그러나 경연참여는 월천의 사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존문집에는 유감스럽게도 주역관계기록이 보이지 않아 그 실상은 알 수 없다.

이상이 대체로 月川의 경학에 관한 견해인 바 한마디로 말해 퇴계이상으로 주자를 받들며 주자설에 대한 비판이나 異說을 僻異端의 차원에서 극력 배척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었다.

IV

禮安과 安東은 退溪의 출신지였다. 그런만큼 이 지역 사람에게 退溪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으며 따라서 약 370명 정도에 이른다는 퇴계의 及門 제자들 가운데 반수 정도가 바로 이 지역에 분포하였다. 安東地域의 門人들은 退溪가 관직에서 물러나 鄉里에 은거하며 본격적인 학문에 침잠, 道學者로서 이름이 드러나는 50대이후에 그 門下를 출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본래 士族勢가 성하였던 곳인 데다가 文科를 통해 현달한 인물이 많았던 만큼 門人集團의 위세가 대단하였다. 그에 비해 禮安은 邑勢가 安東에 비할 바는 못되나 바로 退溪의 鄉里이면서 그 평생의 근거지였음으로써 일찍부터 그 문하에 출입한 인물이 많아서 그 문인 중 대개 선배의 위치에 있었고, 주로 退溪 門人이란 사실에 근거한 學行으로 천거를 받아 地方官職 정도를 역임하는 특징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두 지역 門人들에게서는 退溪學風의 계승에도 미묘한 차이를 드

러내었다. 안동지역이 居敬과 窮理에 의한 修己는 물론 君主를 통한 經世를 위해 出仕에도 적극적이었던데 비해, 예안의 그것은 談經說學하며 踐履篤實하다는 爲己之學 위주여서 難進易退하며 君主보다는 鄉村 단위의 士林에 의한 교화를 우선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는 그 門人들에게는 두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수용될 수밖에 없었을 만큼 退溪의 학문과 행동의 폭이 넓었음을 말해주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지역사이에 同門으로서의 協力·相磨와 함께 보이지 않는 경쟁관계를 조성하게 하였다. 退溪 歿後 선생을 기리고 학문을 계승한다는 면에서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마치 앞다투듯이 禮安의 陶山書院과 安東의 廬江書院을 선후하여 세웠고, 마침내 退溪文集의 편찬 방침을 둘러싸고는 全稿收錄과 刪節精選이라는 異見을 표출(徐廷文, 「退溪集의 初刊과 月川·西厓 是非」, 『北岳史論』3), 그 갈등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것이다.

禮安은 縣勢는 비록 크지 못하였다 하여도 그 안에 상당한 경제기반과 학문을 가진 유력한 士族家門을 적지않게 포용하고 있었다. 溫惠·陶山 지역의 眞城李氏 松齋(楸)·溫溪(瀆)·退溪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 浮浦·烏川の 奉化琴氏(琴蘭秀·琴應夾 등), 烏川の 光山金氏(金富弼, 金富倫 등), 汾川の 永川李氏(李文樑·李德弘 등) 溫惠의 豐川任氏(任屹), 月川の 橫城趙氏(趙穆 등) 新坪의 義城金氏(金澤龍) 知三宜의 丹陽禹氏 및 高敞吳氏(吳澐) 등이 名祖를 받들고 家門을 이루며 한 洞里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가문들은 退溪와 사승관계를 맺은 인물을 적어도 한 두 명씩 가졌고 또 그것이 예안내의 名家로서의 지위유지에 바탕이 되었다. 작은 예안고을에 퇴계문인의 숫자가 많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런 예안의 퇴계 문인을 대표하여 그 학풍을 이끄는 인물이 바로 月川이었다. 예안에는 월천이외에도 金富弼·金富仁·李文樑·李仲樑 등 月川보다 年長者와 琴應夾·琴蘭秀·金富儀·金富倫·李忠樑 같은 儕輩, 李德弘·琴應堦·金澤龍의 후배 등 溪門안의 名士들이 다수 있었지만 퇴계 몰후는 대개 月川을 宗主로 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위에서 말한 陶山書院 건립과 全稿收錄 원칙 고수에 의한 退溪文集의 編纂은 퇴계 嫡傳으로서의 月川 위상의 확립과 동시에 그 토대로서 예안내 溪門의 대표로서 月川의 지위를 다져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안내에 月川을 매개로 하는 退溪學脈의 한줄기가 자리하게 된 것이다.

예안에 사족가문이 다수 분포하고 또 그들 구성원이 빠짐없이 퇴계와 일정한 연결을 갖고 있었던 만큼 퇴계의 적전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한 月川 門下에 그 대부분의 子孫들이 출입하였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대부분이라고 한 것은 月川과 西厓의 不和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禮安내의 일부사족, 예컨대 烏川의 光山金氏 중의 金垓·金核·金光繼 등과 같이 月川에 비판적이면서 오히려 西厓측에 근접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이다(李尙賢,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享論議」, 국민대 석사논문, 1998). 이들은 대개 文科를 거쳐 官路에 진출하였기에 西厓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주장에 공감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서애를 통해 退溪의 學問을 접하려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光海君대에 일어난 月川의 陶山書院 從享論에 유보적이거나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었다. 그러나 적어도 月川의 陶山從享이 실현된 光海君 末年까지 예안의 士林은 月川門人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西厓門人이 주도하는 安東儒林에 맞서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V

현재 예안내 月川 門人의 面면을 자세히 전해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것은 월천 문인 중의 일부가 광해군대 大北政權과 밀착되었다가 인조반정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罪籍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趙穆의 生姪인 琴愷·琴업 등이 처벌받고 月川의 從享을 강하게 밀어붙인 이른바 草頭 四兄弟(李沆·李堧·李慕·李蒔)가 李爾瞻·許筠의 黨으로 몰려 처형당하거나 遠竄되며 나머지 北人과 연결되었다고 보는(반드시 月川門人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孫祐·吳瀾·徐兢 등이 毀家黜鄉됨으로써, 月川에게도 간접적인 타격이 되었고, 또 月川門人이란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을 것이다. 월천문인의 처지가 이러하다면 그 學脈이 다음세대에 의해 계승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파악한 月川의 학맥은 대개 그 及門弟子선에서 그치고 있다. 禮安 지역내 月川門人이라고 파악된 人物의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金澤龍(義城, 1547-1627) / 琴 愷(奉化, 1553-1633)
 琴 愷(奉化, 1562-1629) / 李 沆(永川, 月川門人인 金中淸 門人)
 金 坪(光山, 1563-1617) / 李 沆(永川, 金中淸 사위)
 * 金中淸은 奉化 거주, 朴守誼는 醴安 거주

月川의 학문과 退溪의 嫡傳으로서의 위상을 보아 예안내의 그 문인이 이렇게 영성하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세밀히 찾아보면 좀더 나올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金澤龍과 琴愷은 仁祖反正 당시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들을 통해 그 다음세대 이후까지 月川學派이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역시 仁祖이후 월천은 同門의 西厓·鶴峯·寒岡이 각기 尙州·安東·星州 및 畿湖地方을 근거로 한 退溪學派의 한 줄기를 펼치게 한 봉우리가 되었던데 비해 退溪의 충실한 祖述者로써 그 당대에 그치는 지위에 머물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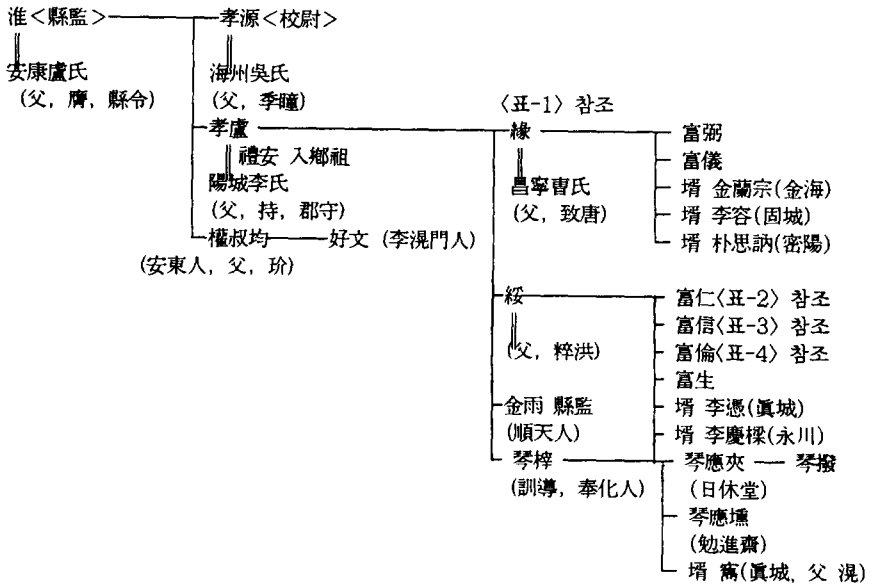
따라서 예안지역 退溪의 學派은 月川이후 본줄기를 잃고 오로지 陶山書院을 중심으로하여 退溪家門이나 光山金氏 家門과 같이 門中별로 전해오면서 대개 肅宗年間까지는 그래도 安東士林에 拮抗해 오다가※ 葛庵·密菴 父子에 의해 退溪의 영남학풍이 安東을 중심으로하여 鶴峯→敬堂→存齋·葛庵→密菴→大山쪽으로 통일되면서 그 속에 용해되어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

※ 安東과 禮安士林간의 갈등관계는 肅宗年間까지도 지속된 것 같다. 일찍이 桐溪 鄭蘊이 月川 外孫子인 金確(光山金氏 金富仁의 曾孫)의 부탁으로 지은 月川 神道碑에 月川이 西厓를 '主和誤國'으로 배척하였다는 말을 넣었는데 이를 놓고 安東의 西厓門人들이 크게 반발해 辨誣錄을 지으면서 이 말을 뺏 것을 예안 유림에게 요구해 분란이 크게 일었다. 이 문제는 西厓의 孫子인 柳元之의 조정으로 더이상 확대되지 않았는데 문제의 '主和誤國' 4字를 놓고 肅宗말경 安東士林의 여론을 대변해 蒼雪齋 權斗經이 禮安士林에게 보내려 한 通文을 보면 先輩의 文字를 削去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補註를 붙이자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權斗經, 『蒼雪齋集』 卷11, 『擬安東士林通禮安士友文』) 이로써 본다면 肅宗말년까지도 禮安士林의 분위기는 安東에 반드시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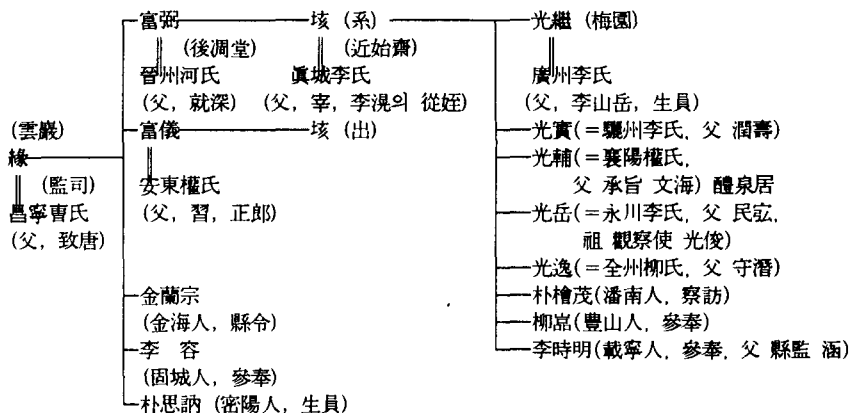
附錄：禮安의 代表的인 士族 家門의 家系圖

- 1. 光山金氏 禮安派
- 2. 眞城李氏：李繼陽→李滉
- 3. 奉化琴氏 琴梓→琴應夾·應堦 // 琴蘭秀→琴儼
- 4. 橫城趙氏：趙穆
- 5. 永川李氏：李欽→李賢輔·賢佑→李德弘→李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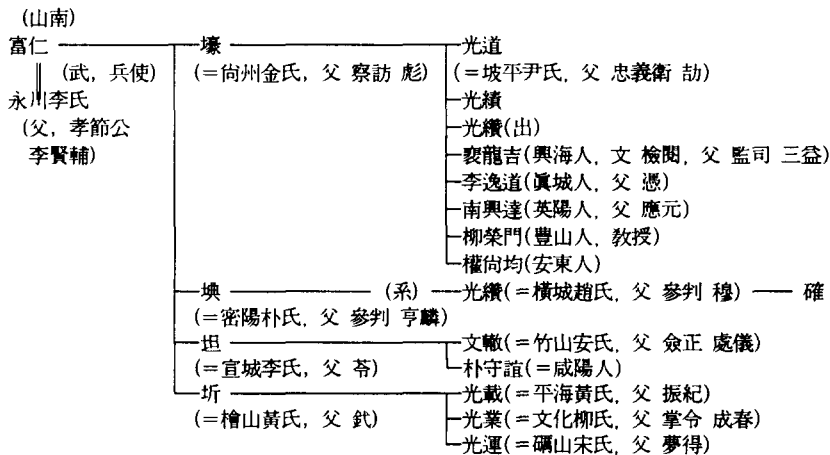
1. 光山金氏 禮安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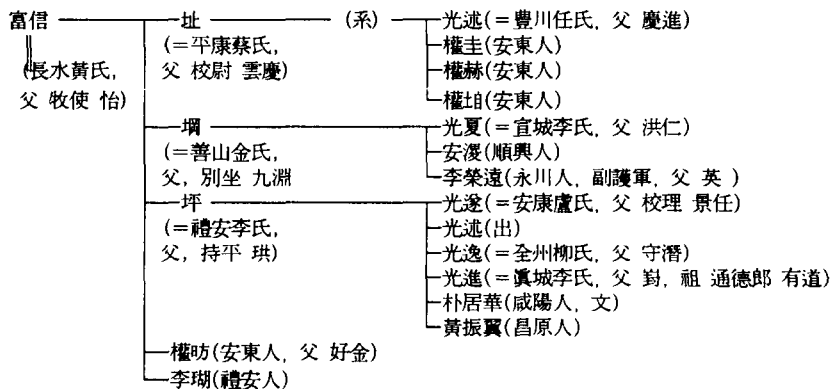
<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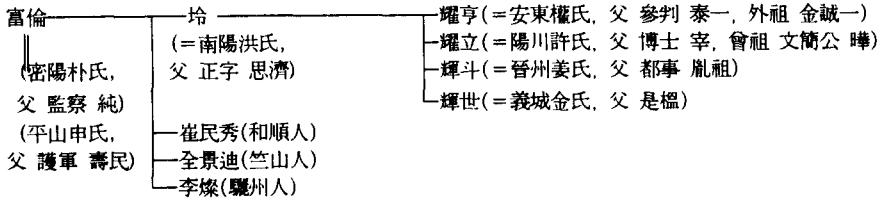
<丑-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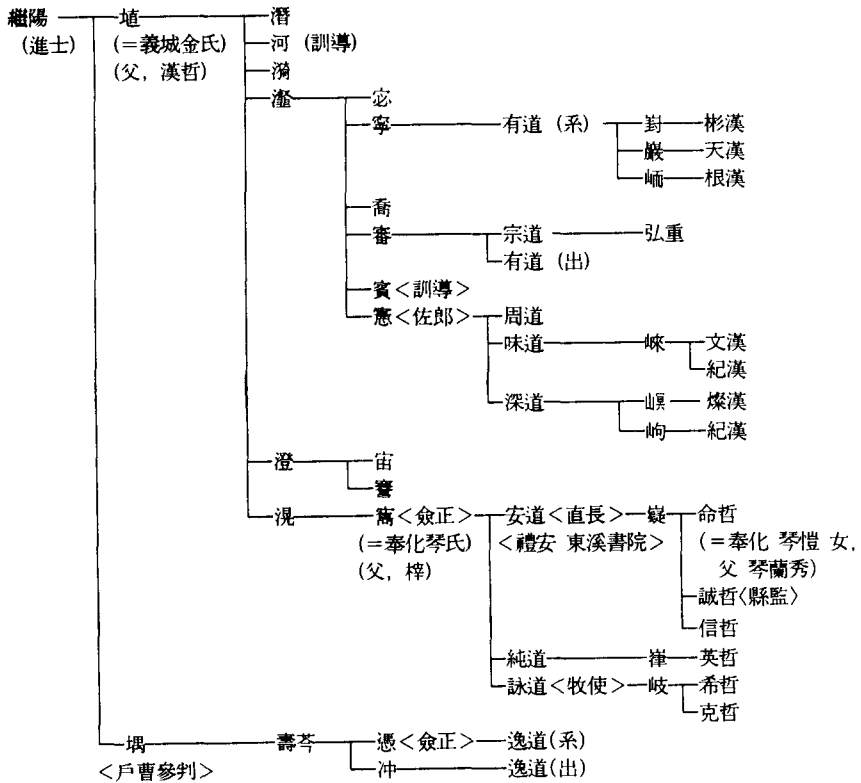
<丑-3>



〈丑-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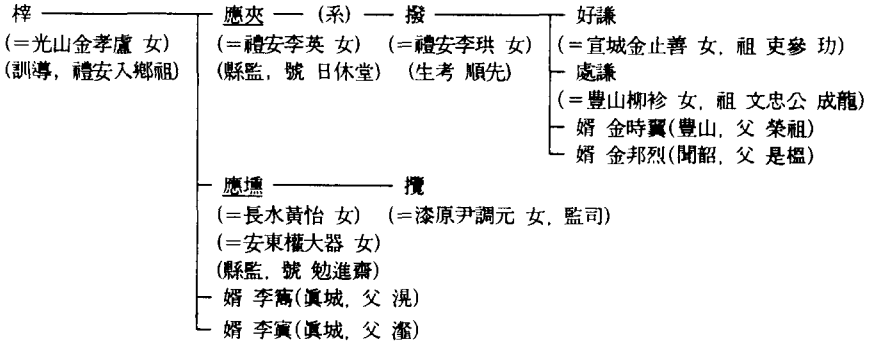


2. 眞城李氏(李繼陽→李滉)



3. 奉化琴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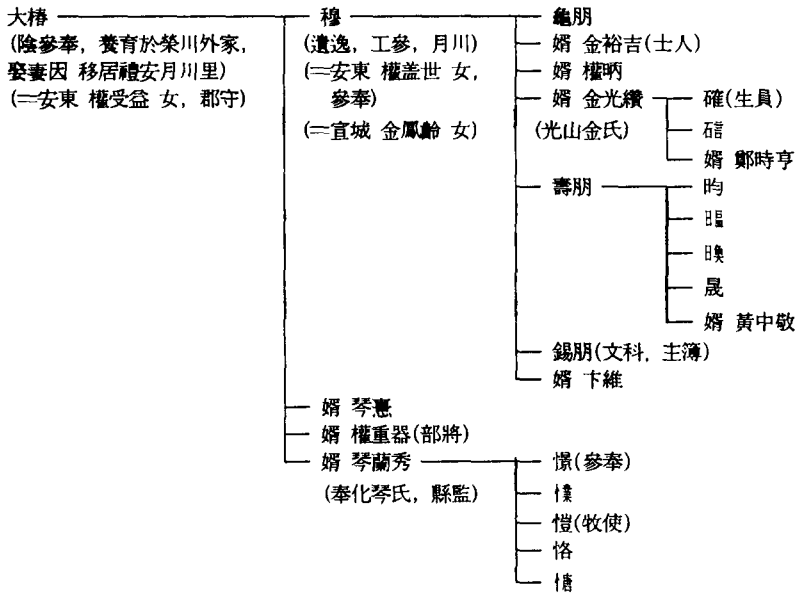
※ 琴梓→琴應夾·應壘家



※ 琴蘭秀→琴愷



4. 橫城趙氏(趙穆)



5. 永川李氏(李欽→李賢輔·賢佑→李德弘→李蒔)

